



[2023 수원서베이]

수원서베이로 본 세대별 행복과 정책수요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farnia@suwon.re.kr
정재진 연구기획실장
김재이 위촉연구원

요약

I 세대별 행복과 삶의 만족도

- Z세대: 진로탐색과 가족형성(결혼, 임신출산)이 중요한 시점.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자신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성공을 중요하게 인식
- M세대: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가정과 경제적 풍요를 중요하게 인식
- X세대: 건강 만족도가 점차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은 세대, 행복한 가정과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
- 베이비붐세대: 행복과 삶의 만족도 보통수준,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중요하게 인식. 베이비붐세대부터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 보임
- 실버세대: 행복, 삶의 만족도, 건강 만족도 모두 낮고 외로움과 우울감은 가장 높음

시사점

I 수원시, 시민행복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행

- 수원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청년은 진로탐색과 가족형성, 주거, 중장년은 일자리와 주거, 노년은 일자리와 건강)를 통해 시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업 수행중
-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제시한 세대별 행복의 주요원인 '건강'에 대한 정책은 노년에 집중. 수원시민의 웰니스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필요

I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베이비붐세대, 실버세대의 행복 증진 제고

- 행복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베이비붐세대와 행복감이 가장 낮고 외로움과 우울감이 가장 높은 실버세대를 위한 행복 지원 정책 필요. 가령, 미국의 러셀 빌리지(Lasell Village)와 같이 지역사회의 캠퍼스를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배움'과 '실버주거'를 동시에 해결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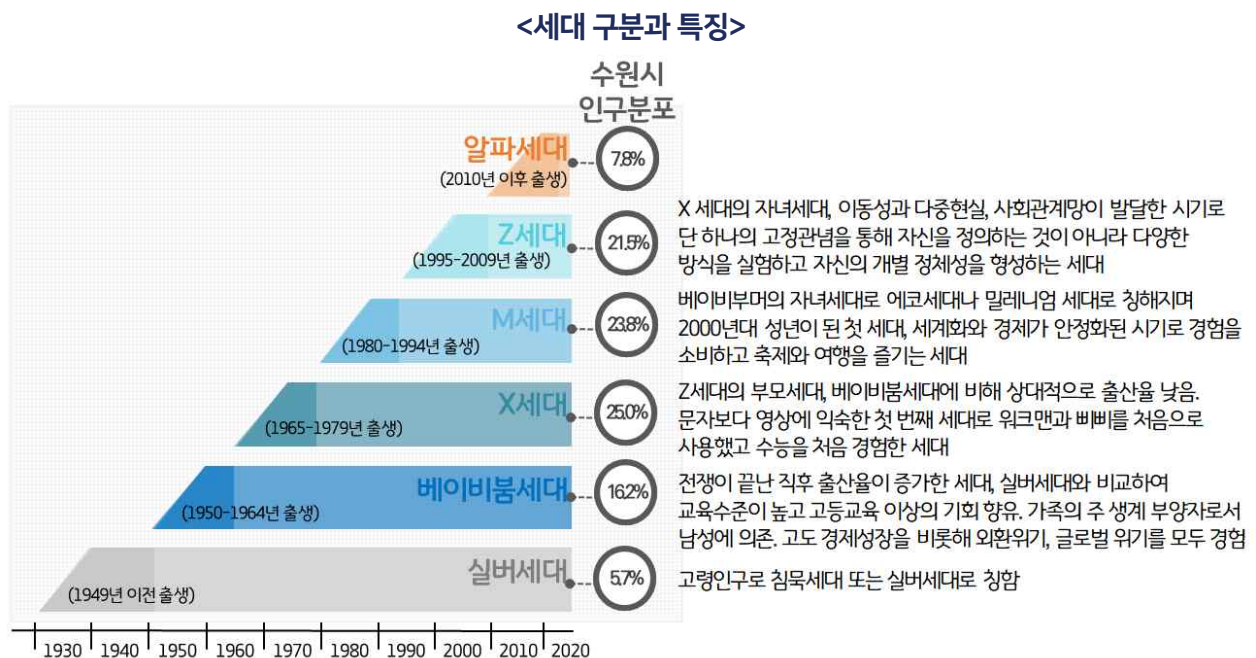
1 세대별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 발굴 필요

□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수요자에 대한 이해 폭을 확장시키는 세대연구 필요

-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대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변미리 외, 2017)
- 세대(generation)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을 의미
- 산업화 세대, 386세대, 베이비붐세대,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 용어가 사용 중이며, 세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소비패턴, 가치관, 생활양식, 조직문화 차이 등을 비교하고 인식과 (정책)수요 발굴

□ 세대별 성장배경, 가치관, 이념, 생활양식 차이 존재

- 1993년 홍보의 주 타겟층을 10대 후반 20대 중반으로 설정하면서 신세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X세대 사용. 이후 2010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고 베이비붐세대와 비교 대상으로 밀레니얼 세대 용어 사용. 최근에는 MZ세대가 본격적으로 조직으로 유입됨에 따라 MZ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직문화 변화의 주 타겟층으로 사용(김영란 외, 2010; McKinsey & Company, 2018; 서울경제, 2018; 박민진 외, 2021)



주: 통계청과 퓨리서치센터(미국)의 세대 기준을 바탕으로 재정리

퓨리서치센터(미국): Z세대(1996년 이후) / M세대(1981-1996) / X세대(1965-1980) / 베이비붐세대(1946-1964) / 실버세대(1928-1945)

통계청(한국): Z세대(1995년 이후) / M세대(1980-1994) / X세대(1965-1979) / 베이비붐세대(1950-1964)

수원시 인구분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활용(2023년 기준)

출처: 삼성KPMG(2019); 박민진 외(2021)

2 수원서베이 조사 결과: 세대별 특성 및 행복 만족도

2-1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¹⁾

□ 통계청과 맥킨지 코리아의 세대 구분 정의에 따라 수원시민의 세대별 특성 분석

○ 세대별 비율은 X세대(33.5%), M세대(24.8%), 베이비붐세대(21.2%), Z세대(17.4%), 실버세대(3.1%) 순임

<세대구분>

(단위: 명, %)

구분		출생연도	연령(2023년 기준)	빈도	비율
세대별	Z세대	1995년 이후	~28세	327	17.4
	M세대	1980~1994	29~43	494	24.8
	X세대	1965~1979	44~58	632	33.5
	베이비붐세대	1950~1964	59~73	496	21.2
	실버세대	1949년 이전	74세~	92	3.1

○ [혼인] Z세대의 87.3%는 미혼,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실버세대는 기혼 비율 높게 나타나(10명중 7~9명)

- 사별비율은 실버세대 29.9%, 베이비붐세대는 11.8%임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전체		20.9	73.3	2.2	3.6
세대별	Z세대	87.3	12.7	0.0	0.0
	M세대	20.6	78.5	0.9	0.0
	X세대	1.9	93.7	4.1	0.3
	베이비붐세대	0.1	85.4	2.7	11.8
	실버세대	0.0	69.9	0.2	29.9

○ [학력] X세대 2명중 1명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며 MZ세대는 10명중 7~8명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 베이비붐세대의 71.0%는 고등학교 졸업이며 실버세대는 중졸 이하가 60.0%임

<학력>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전체		6.6	41.8	51.6
세대별	Z세대	2.4	23.4	74.2
	M세대	0.4	21.9	77.7
	X세대	0.4	47.9	51.7
	베이비붐세대	19.2	71.0	9.8
	실버세대	60.0	37.6	2.4

1)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 종교, 주택유형, 연령, 세대 등)과 행복을 교차분석 한 결과, 혼인상태, 학력, 직업, 종교, 가구소득, 경제사회적 위치, 연령, 세대는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p < 0.001$)

- [직업] MZ세대는 화이트 컬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X세대는 화이트컬러 비율이 가장 높지만 블루컬러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

-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는 기타 비율(주부, 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직업>

(단위: %)

구분		관리전문직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기타
전체		6.9	40.8	27.8	24.5
세대별	Z세대	2.2	56.1	18.5	23.2
	M세대	5.8	60.3	22.3	11.6
	X세대	12.4	37.5	33.5	16.6
	베이비붐세대	4.7	16.8	33.0	45.5
	실버세대	0.0	0.1	25.5	74.4

주: 관리전문직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화이트칼라 :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블루칼라 :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학생, 주부, 무직, 기타

- [주택유형] 수원시민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Z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MZ세대는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주택 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택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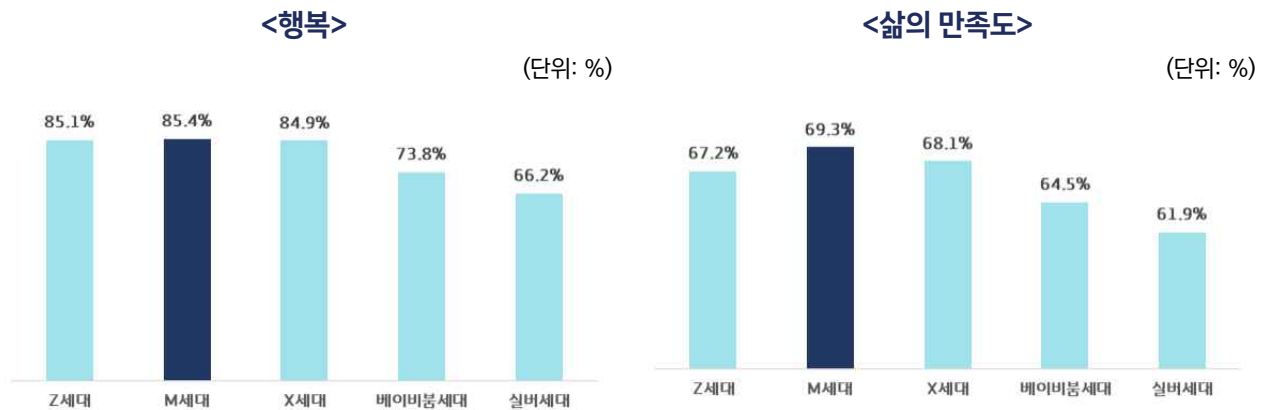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택 외 기타
전체		65.7	5.3	26.6	2.4
세대별	Z세대	63.6	3.8	29.0	3.6
	M세대	63.1	5.9	26.8	4.2
	X세대	69.9	4.5	24.5	1.1
	베이비붐세대	63.0	6.3	29.3	1.4
	실버세대	72.8	10.2	16.0	1.0

2-2 세대별 행복과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 M세대가 행복,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실버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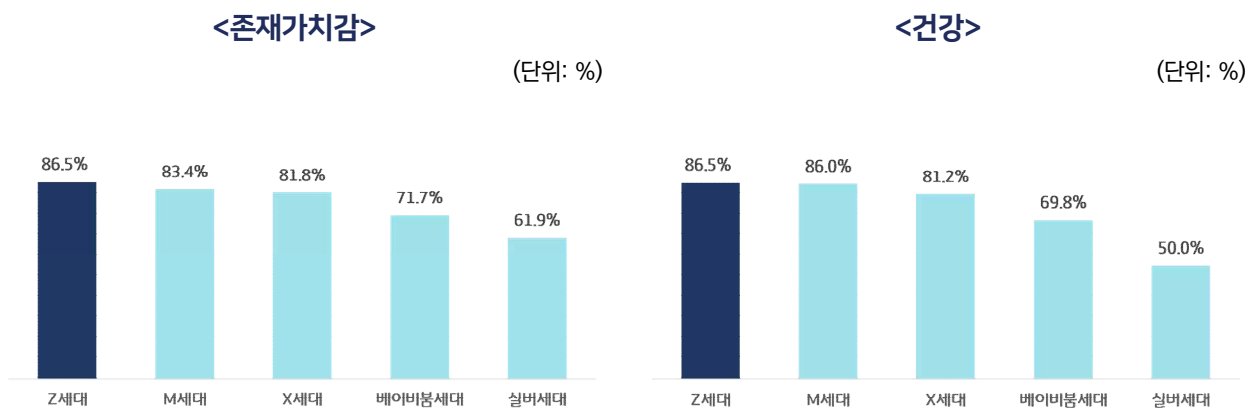
- M세대의 행복감이 85.4%로 가장 높고, Z세대(85.1%), X세대(84.9%) 순이며 삶의 만족도 또한 M세대가 69.3%로 가장 높고 X세대(68.1%), Z세대(67.2%) 순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 보임
 - 이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U자형²⁾과 달리 중장년 이후에도 삶의 만족 수준이 회복되지 않는 경향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김성아정해식, 2019)

2) 삶의 만족 수준이 40~50세 사이에서 최저점을 보인 후 60세 이상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75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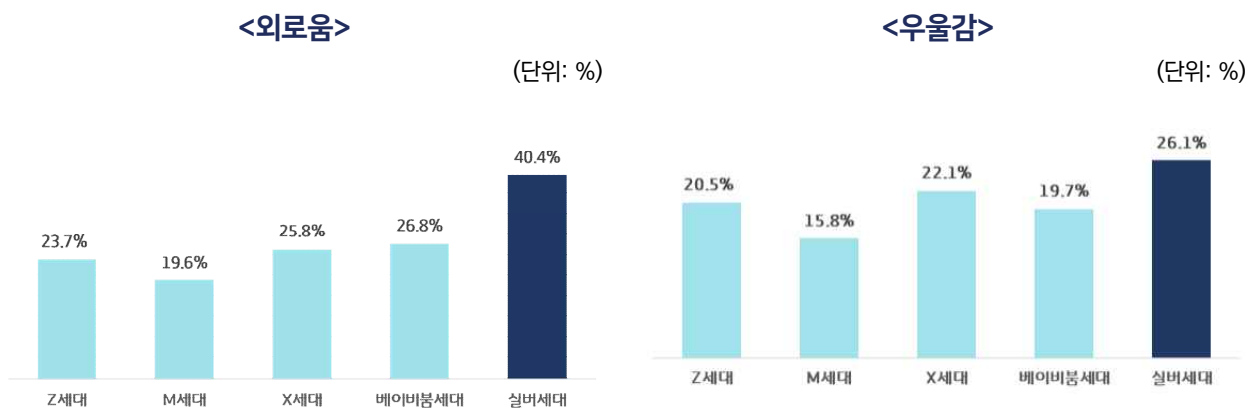
□ [존재가치감과 건강] M세대가 존재가치감과 건강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존재 가치감은 Z세대가 8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M세대(83.4%), X세대(81.8%) 순임. 건강 만족도 또한 Z세대가 8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M세대(86.0%), X세대(81.2%) 순임



□ [외로움과 우울] 실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감 가장 높음

- 외로움은 실버세대가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이비붐세대(26.8%), X세대(25.8%) 순임. 우울감은 실버세대가 2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X세대(22.1%), Z세대(20.5%) 순임



□ 세대별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차이 있음

-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Z세대는 자신의 능력개발(31.5%)과 사회적 성공(17.4%), M세대와 X세대는 행복한 가정,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는 건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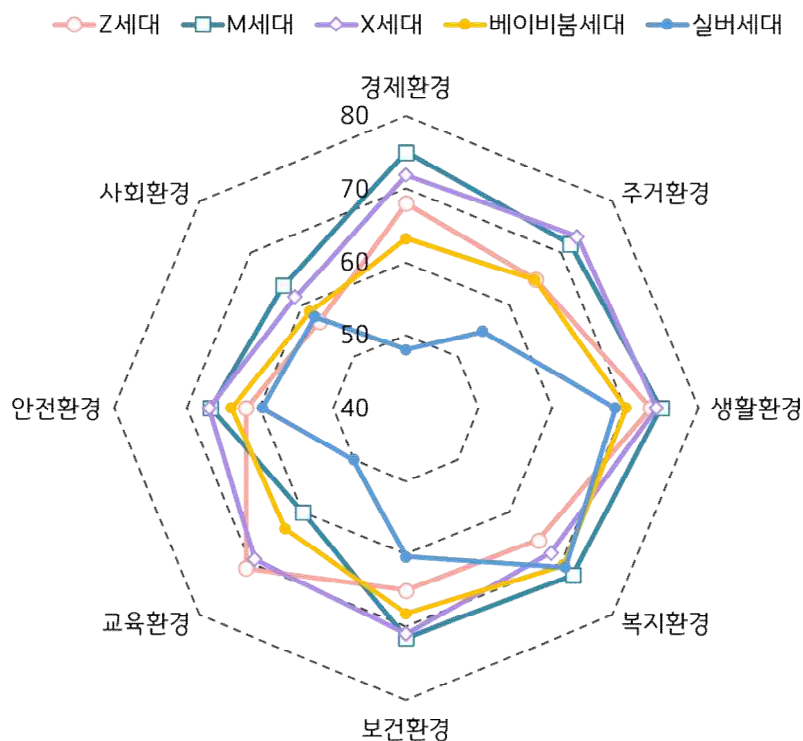
구분	행복한 가정	건강	경제적 풍요	자신의 능력 개발	사회적 성공	좋은 인간관계	취미생활 /여가	정신적인 성숙	기타
전체	26.8	24.3	16.7	12.8	8.5	4.1	3.2	1.9	1.7
세대별	Z세대	11.6	8.6	16.4	31.5	17.4	4.5	4.6	1.0
	M세대	37.0	10.0	18.6	15.0	10.7	3.7	2.5	1.0
	X세대	35.3	21.6	18.7	7.6	6.3	3.4	2.6	3.2
	베이비붐세대	16.6	51.0	13.2	4.5	3.6	4.8	4.3	1.8
	실버세대	6.7	72.9	8.0	0.9	0.0	8.8	0.0	0.8

□ 세대별 삶의 만족도는 M세대(경제, 생활, 복지, 보건, 사회)와 Z세대(주거, 안전)에서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를 경제, 주거, 생활, 복지, 보건, 교육, 안전, 사회 등 총 8개 영역으로 살펴본 결과, M세대가 경제, 생활, 복지, 보건, 사회 영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Z세대는 주거와 안전환경에서 Z세대는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실버세대는 복지환경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삶의 만족도>

(단위: 만족한다 종합, %)



2-3 세대별 정책수요

□ 세대별로 느끼는 복지서비스 충분성은 영역별로 상이

- Z세대는 수원시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중 일자리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 M세대는 주거, 일상생활, 문화 및 여가 지원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며 X세대는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보호 및 돌봄 요양, 보육 및 교육 지원, 안정 및 권익 보장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함. 실버세대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인식
- 주 돌봄 당사자인 X세대(44~58세)가 느끼는 보호 및 돌봄 요양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충분성이 높게 나타남

<복지서비스 충분성>

(단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구분	일자리 지원	주거 관련 지원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보건의료 지원	정신건강 심리정서 지원	보호 및 돌봄 요양 지원	보육 및 교육 지원	문화 및 여가 지원	안정 및 권익보장 지원
전체	60.1	58.7	58.5	67.7	57.5	66.1	65.0	56.4	54.1
세대별	Z세대	62.5	53.3	56.6	64.0	51.5	64.2	62.0	51.4
	M세대	61.6	66.2	63.5	66.2	56.9	64.6	65.2	60.0
	X세대	59.6	58.3	57.6	72.0	60.4	67.9	66.9	57.4
	베이비붐세대	57.4	55.7	56.9	67.4	57.8	67.6	65.6	55.6
	실버세대	59.7	55.0	49.4	58.3	60.5	60.0	56.6	49.0

□ MZ세대와 X세대는 아동 양육 지원 시설,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는 노인 대상 시설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

- 세대별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로 MZ세대와 X세대는 아동 양육 지원 시설,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는 노인 대상 시설로 인식. 즉,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우선 필요한 복지시설 상이
- 장애인 대상 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X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대상 시설은 Z세대에서 높게 나타남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

(단위: %)

구분	아동 양육 지원 시설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노인 대상 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장애인 대상 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여성 대상 시설 (여성가족 회관 등)	기타 (노숙자 및 이주민 등)
전체	36.7	28.5	19.4	12.7	2.7
세대별	Z세대	37.2	21.1	19.3	18.9
	M세대	59.3	13.1	14.8	10.8
	X세대	33.3	26.1	23.9	13.8
	베이비붐세대	18.9	50.4	19.0	9.2
	실버세대	12.9	70.0	9.5	5.1

□ MZ세대와 X세대는 일자리,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는 복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분야로 인식

○ 세대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분야(1순위)로 MZ세대와 X세대는 일자리를,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는 복지를 꼽음

<수원시에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분야(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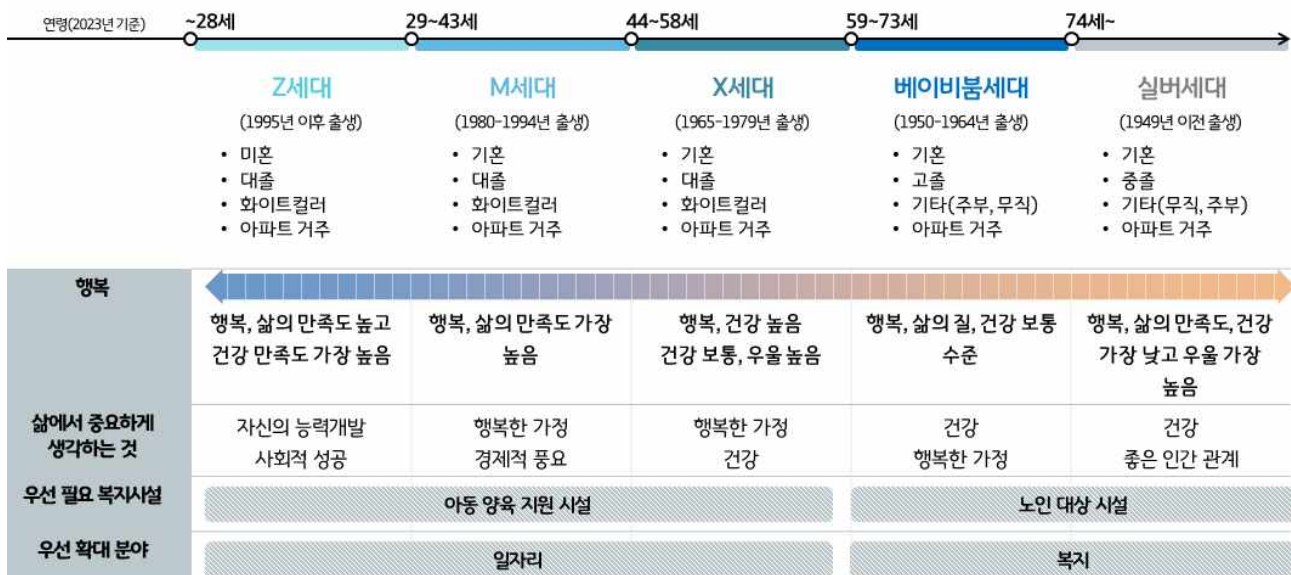
구분	일자리	복지	산업 및 경제	주거 및 생활	교통	도시 계획 및 정비	안전	문화, 체육, 관광	환경 및 기후 변화	기타
전체	21.1	19.8	16.4	14.9	10.7	5.9	3.3	3.1	2.1	2.7
세대별	Z세대	25.8	17.2	14.3	14.6	8.3	6.9	4.6	3.7	2.9
	M세대	19.8	17.8	15.6	17.3	8.4	6.1	4.9	4.3	4.3
	X세대	21.2	17.4	19.4	13.8	15.1	5.5	1.5	1.9	2.6
	베이비붐세대	18.6	27.3	15.1	13.8	9.5	5.3	2.6	3.2	2.0
	실버세대	22.1	25.1	12.4	15.3	3.4	4.3	9.2	1.1	5.4

3 요약 및 시사점

□ 세대별 행복, 정책수요 상이하며 행복감이 낮은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를 위한 노력 필요

○ MZ세대, X세대의 행복감 높고 베이비붐세대와 실버세대 행복감 낮음. 세대별 특징은 생애주기의 흐름과 유사

- Z세대는 진로탐색과 가족형성이 중요한 시점. 이들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M세대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행복한 가정과 경제적 풍요를 중요하게 생각함
- X세대는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은 시기이며 행복한 가정과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
- 베이비붐세대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보통수준이며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중요하게 인식
- 실버세대는 행복, 삶의 만족도, 건강 만족도 모두 낮고 우울감은 가장 높게 나타나 실버세대를 위한 행복 제고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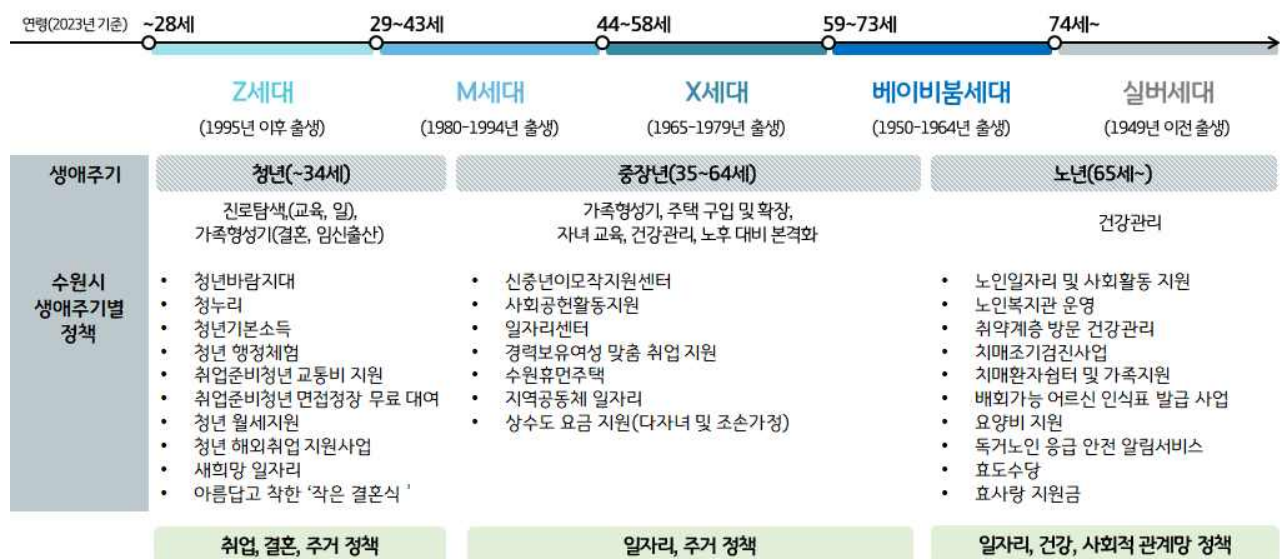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연령 그룹은 장년(45~59세)과 노년(60세이상)

- 세계행복보고서(2024)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감 전체 순위는 52위(143개국)이며 청년(30세 미만) 52위, 중년(30~44세) 45위, 장년(45~59세) 55위, 노년(60세이상) 59위임. 즉, 한국의 행복감은 청년과 중장년이 높고 장년과 노년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수원시민의 행복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전 세계에서 행복하지 않은 세대(연령 그룹)는 노년이 71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장년(35개국), 중년(30개국) 순임. 세계행복 보고서는 장년 이후에 행복감이 낮아지는 이유를 연령대별 유병률(건강)로 설명

□ 수원시의 세대별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

○ 수원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행복감 제고 중

- 청년 대상 정책은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진로탐색과 가족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
- 중장년 대상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중점을 둠
- 노년 대상 정책은 일자리와 건강(치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
- 수원시 정책은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중이나 외로움, 우울감 등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정책 부족함. 또한 건강 사업은 주로 노년을 대상으로 함.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건강임. 수원시 전 세대의 웰니스(wellness)³⁾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주: 수원시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재구성(https://www.suwon.go.kr/welfare_match/)

○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베이비붐세대, 실버세대의 행복 증진 제고 노력 필요

- 2000년대 초반 은퇴한 사람들이 학교 근처에 모여 살면서 강의를 듣거나 편의시설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캠퍼스 인근에 은퇴촌 조성. 미국의 듀크, 코넬, 다트머스, 미시간주립대와 같은 명문대학부터 러셀컬리지 이타카컬리지 등 전문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은퇴촌 설립중

3)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

- 2000년에 설립된 러셀 빌리지(Lasell Village)는 미국 최초로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된 은퇴촌으로 평생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곳임. 러셀빌리지에 입주하는 거주자는 주당 9시간을 다양한 그룹, 개인활동에 참여하여 건강과 신체적 웰빙 유지



- 고령자들이 대학수준의 평생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고 대학 내 도서관 및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원시내 대학과 연계 필요

✓ 2023 수원서베이

- 조사목적 : 수원시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여 수원시민 중심의 정책수립에 기여
- 조사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2,041명
- 조사방법 : 가구방문면접조사
- 조사시기 : 2023.12.13.~2024.01.19
- 조사내용 : 시민의 삶과 실태, 소속감 및 이주계획, 수원시정 인식 및 기대사항 등 총 211개 문항

■ 참고문헌

- 김성아,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4, 95-104.
- 김영란. (2010). 베이비붐세대의 남녀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민진, 민보경, 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도시행정학보, 34(4), 121-147.
- 변미리, 박민진, 김진아. (2017). 서울 미래세대 리포트. 서울연구원.
- 삼정KPMG. (2019). 新소비세대와 의·식·주 라이프 트렌드 변화. 66,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서울경제. (2018.10.12.). X→Y→Z 변화하는 신세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VW1AR6X>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4). World Happiness Report 2024.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 Mckinsey&Company. (2018.11.12.). 'True Gen': Generation Z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ies.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consumer-packaged-goods/our-insights/true-gen-generation-z-and-its-implications-for-companies>
- 러셀빌리지 홈페이지(<https://lasellvillage.com>)
-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SRI 정책Brief 발행목록

발행호	발행주제	집필자	발행일
24년 제1호	스웨덴 '1분 도시'의 사례와 정책제언	안국진 연구위원	2024.1.11.
24년 제2호	COP28 주요 이슈 및 지방정부 시사점	이태동 연세대 교수	2024.1.18.
24년 제3호	[SRI 시민패널조사] 수원시 청년·중장년 실태조사와 시사점	박민진 연구위원 외 3인	2024.1.28.
24년 제4호	새빛민원실 이용자 만족도와 시사점	정재진 연구위원	2024.2.01.
24년 제5호	오산용인고속도로가 수원시 교통패턴에 미치는 영향	김도훈 연구위원	2024.2.15.
24년 제6호	[SRI 시민패널조사] 수원시 맞벌이 가구의 생활 실태조사	박민진 연구위원 외 3인	2024.2.22.
24년 제7호	수원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	강은하 연구위원 외 1인	2024.2.29.
24년 제8호	수원새빛돌봄 시범사업의 발전방향	김지영 주무관 외 1인	2024.3.07.
24년 제9호	[SRI 시민패널조사] 수원시민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실태	박민진 연구위원 외 2인	2024.3.21.
24년 제10호	수원시 정원인프라 현황 및 정원산업의 방향	김은영 연구위원	2024.3.28.
24년 제11호	수원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만족 및 정책제언	김숙희 선임연구위원	2024.4.04.
24년 제12호	수원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방향 검토	김도훈 연구위원	2024.4.11.
24년 제13호	수원시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한연주 연구위원	2024.4.18.
24년 제14호	창업친화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언 I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황지현 연구위원 외 3인	2024.4.23.
24년 제15호	베를린 '미래의 장소'를 통해 본 수원시 도시재구조화 제언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단장	2024.4.30.
24년 제16호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사례와 수원시 구축방향	박경문 전문연구위원	2024.5. 7.
24년 제17호	시민과학 기반의 생물다양성 증진사례와 제언 -수원시 인공새집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송원경 단국대 교수	2024.5.21.
24년 제18호	환경의 날, 기후위기 사회변화 대응전략 논의	강은하 연구위원	2024.6.11.
24년 제19호	수원시 혼잡도로 선정,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김도훈 연구위원	2024.6.25.
24년 제20호	[SRI 수원서베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원시 교통정책 방향 설정	김도훈 연구위원	2024.7. 3.
24년 제21호	[SRI 수원서베이] 수원시 공원녹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김은영 연구위원	2024.7. 3.
24년 제22호	[SRI 수원서베이] 수원서베이를 본 세대별 행복과 정책수요	박민진 연구위원	2024.7.16.
24년 제23호	수원화성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운영 개선 방향	김도훈 연구위원	2024.7.16.

SRI 주요 일정

- ▶ 2050 수원 미래비전 강연
- | 주 제 | 문화예술과 관광은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가

| 강연자 |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일 시 | 2024. 7. 24.(수) 14:00

| 장 소 | 더함사랑방(더함파크 1층) *추후 장소 변경 가능

SRI 정책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